

산이 좋다! 사람이 좋다! 협회가 좋다!

- 창립 4주년 기념 청계산 등산대회 -

글 · 이선호 편집장



산행전 기념촬영. ESCO협회의 산행은 임직원 및 회원사 직원, 관련 언론 담당기자 등 모두 32명이 참석했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를 묻지 않는다. 그냥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을 오른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은 늘 소란스럽거나 까탈스럽다. 가끔은 세상 밖에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안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밖에서 보면 분명해질 때가 있다. 자, 이제 산에 올라 보자.

4월 12일 아침, 비가 오락가락할 거라는 일기예보는 있었으나 지나치게 화창한 것보다는 적당한 비가 산행에 이로울 것이라는 나름의 경험을 위안으로 삼으며 약속장소인 청계산 입구에 도착한다.

일명 윈터골입구라고도 불리는 청계산 초입. 일행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벌써 정상까지 다녀왔는지 내려가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다. 해발 580m인 매봉까지는 2시간 30분 코스라고 했는데 그들은 최소한 6시 무렵부터 산행을 했을 터였다. 부지런한 사람들. 그들의 부지런함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왔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빚을 지고 사는 셈이다. 나는 마음 속으로 그들에게 경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산행에 초대된 사춘객들을 찾아본다.

장재련 사무국장, 박숙영 씨, 삼성에버랜드의 김한 대리, 김은이 씨 그리고 중앙전자통신의 김영민 차장이 먼저 와 있다. 그들 역시 부지런한 사람들에 속한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김정리를 시작한다. 오늘 산행을 위하여 회원사에서 협찬해준 물건들을 가벼운 등산가방에 챙겨 넣고 일부는 (사)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창립기념 등산대회라고 써어져 있는 플랜카드를 내건다. 그 사이 사람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한다. 최석곤 회장님도 어느 사이에 와 계시고 광규천, 이범용 두 부회장님, 중앙전자통신의 안종렬 사장님, 김석철 감사님 등등과 에너지 관련 신문기자들 모습도 보인다.

9시가 살짝 넘어 예정대로 산행을 시작하기 앞서 기념 사진을 찍는다. 도합 32명. 앞서거나 뒤서거나 무리들이 진달래 흐드러진 청계산의 허벅지 사이로 사라지고 나면 한 바탕 질펀한 웃음이 맑은 공기와 함께 정상을 향해 솟구친다.



하산길의 山中閑談. 잠시 카메라를 봐 주시죠!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최석근 회장)

누가 그랬던가. 사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여기저기 썩은 구근에서 개나리들, 진달래들, 목련을 피우기 위해 아우성치는 꽃나무들의 즐거운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그렇다면 사월은 분명 잔인한 달임에 틀림이 없다. 여기 청계산은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그 점이 마음에 든다. 또한 산은 평이하고 긴장감을 유발하지 않는다. 협회 창립 기념행사 때마다 관악산을 올랐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증얼거린다. 나무관세음보살.

처질 사람들은 처지고, 누구에게 들으니 선두는 벌써 578m의 매바위 표석을 지나 582.5m의 매봉표석까지 올랐다고 한다. 오늘의 선봉장에게는 협회에서 마련한 약소하나마 선물이 주어질 터. 전기공업신문의 한호식 기자가 구름의 제왕으로 등극, 속세로의 하산이 시작되었다.

청계산은 주봉인 망경대를 비롯, 옥녀봉, 청계봉 등으로 이루어진 서울 남쪽의 작은 산이다. 최근 들어 서울 시민들의 주말 산행코스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관악산, 서울대공원과 가깝고 인근 의왕 등지에 먹거리 불거리가 풍부하게 널려 있다. 중턱 부근부터 구름이 시야를 가려 서울 인근의 풍광을 볼 수



중앙전자통신 인종렬 사장님. "한 번 더 올라갔다 올까?" ▶



청계산의 주봉은 망경대지만 이날 산행의 정상은 582.5m의 매봉이었다.



“선물을 드리죠.” 이 날 선물은 즉석복권이었다. 하지만 당첨되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없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산을 오르는 데 쯤병인 사람도 내려가는 데는 신바람이 나는 법. 매봉 아래턱에 돌문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문틈 사이로 사람들이 빙글빙글 돈다. 아마 누군가 몇 바퀴를 돌면 복이 온다는 후세무민의 전설을 퍼트렸을 것이라 추측하고 그냥 웃는다. 노익장을 과시하시면서 안중렬 사장님이 씩씩하게 걸어내려 가시고 최석곤 회장님도 연신 수건에 땀을 훔치시며 대지의 생기를 호흡하신다. 젊은 남녀들은 꽃더미 속에 안겨 사진을 찍는다. 청춘의 한 나절이 그대로 카메라 앵글 속에서 멈춘다.

뒷풀이 장소는 입구 근처의 ‘화이트하우스’란 식당이다. 백약관 2층에 자리를 잡고 산행에 가쁜 숨을 동동주 한 잔으로 쓸어내린다.

“공사다망하신 와중에도 이렇게 협회 창립 4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와주신 모든 분들께...”

최석곤 회장님의 인사말씀이 끝나고 약소한 선물증정식이 거행된다. 가장 일찍 온 김현규 차장과 구름의 제약 한호식 기자, 기념품 협찬사 대표들이 대상이다. 봉투를 열어보니 즉석복권이다. ‘정말 복이 있을까?’ 팡이어도 모두가 즐겁게 웃는다. 옛날 노래도 한 곡조 하고, 회장님 특유의 하사주도 한 잔씩 받고, 토요일 한낮의 풍경이 저물어간다. “내년에도 청계산으로 오는 거 맞죠?” 누군가는 벌써 내년을 꿈꾼다. 그의 희망이 ESCO사업을 밝게 만든다. ESCO협회를 살찌운다.

오후 3시 40분. 등반대회가 파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는 길은 팍팍 막혀있다.⑥



하산길에 휴게소 부근 진달래를 배경으로 젊은 사람들이 모였다.



▶ 돌문바위 앞에서.